

## 여성이 이끄는 북한 사회의 변화, 그곳에 희망이 있다.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제1회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는 “북한사회의 변화, 여성, 시장화 그리고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북한여성사회연구라는 국제학술회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여성의 위치에서 조망하며, 변화의 내적 동학과 변화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지난 6년 동안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총 60여명의 남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왔습니다. 주제는 경제생활과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탈북한지 2년 이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제3국 생활로 야기될 수 있는 기억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는 총 6권의 책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기초발표의 내용들은 모두 이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합니다. 여성과 시장이라는 특정한 주제로 살펴본 북한사회의 모습은 북한사회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장을 매개로 한 북한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강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는 시장이 북한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의 역할에 관한 작은 소망입니다.

### 시장의 여성화와 성별 이중경제

1990년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1995-2000)이라는 경제위기로 등장한 장마당과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전환기적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북한과는 다른 모습의 북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여성이었습니다. 북한 시장경제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여성들에 의해서 추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주민들은 성별에 따라서 시장을 다르게 경험하였고 그 결과가 시장의 여성화현상입니다. 시장의 여성화현상은 북한체제의 특수한 요인들에 기인한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하나는 기혼여성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혼여성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생시절에는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파 직업동맹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단련대나 교화소로 보내지는 벌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직장은 생산단위이면서 사상교육과 주민통제가 이루어지는 정치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수성은 결과적으로 “남편은 사회주의경제, 아내는 시장경제”라는 성별 이중경제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이렇게 형성된 성별 이중경제영역 간의 극심한 소득격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주의 경제영역에서 일해서 받는 임금은 북한주민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시장에서 파는 두부 한 모 값이나 국수 한 그릇, 혹은 쌀1kg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으로는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이직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결국, 아내의 경제활동이 없이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여성화 현상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인 여성들이 가족생계를 전담하는 실질적인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북한여성들의 시장 활동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지위도 상인에서 자영업자로 그리고 투자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초기에 여성들은 집안의 물건이나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내다 파는 상행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 특산품이나 생필품을 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팔았고, 밀수나 무역을 직접 하거나 중간에서 거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파는 도소매업 형태의 자영업자로 발전하였습니다. 장거리 장사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돈이나 중국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은행의 역할을 하는 돈주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아내들도 투자자로 시장경제에 개입하였습니다.

## 북한판 성별분업과 장마대세대 여성

그렇다면 시장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여성들의 경제력은 증가했고 가족경제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기여가 확대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한도 커졌습니다.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로 성역할 구분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와 구조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성별 분업이 형성되었습니다. 가부장제사회에서 가장인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이것이 남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명분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돈은 남자가 벌고 가사노동은 여자가 하는 성별 분업구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 자본주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북한판 성별 분업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외에 가계부양의 책임마저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여성화현상은 교육기회와 전문성제고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 나간 부모 대신 누군가는 집을 지키고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받아도 국가에서 배치해준 사회주의 경제영역에서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학벌의 고하를 떠나 여성들은 대부분 시장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어지는 상황에서 여성 스스로가 전문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대 장마당세대의 여성들의 의식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대 탈북여성은 사회 곳곳에서 남자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서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남성은 돈벌이와 무관하게 직장에 나가지만 여성들은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개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명백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희생이나 미덕,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대는 이렇듯 장마당 여성세대들을 삼중고에 시달리는 슈퍼우먼이 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 **평양 가서 장도 보고 양덕 가서 온천욕도 하고...**

한반도에 사는 남북의 여성들은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해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여성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에 기대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여성의 삶의 변화가 남북화해협력의 메신저로서 여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좀 더 시장 지향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그들의 시장진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행군 전후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지금의 4-50대와는 전혀 다른 경험, 즉 배급이 아닌 시장에서 성장한 장마당세대입니다. 2015년 현재 29세 미만의 장마당세대가 북한전체 인구의 44%이고 10년 뒤엔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장마당 세대의 기억 속에는 벗어나고 싶은 김정일시대의 북한만이 있을 뿐 부모세대처럼 돌아가고 싶은 김일성시대의 북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없습니다. 장마당세대는 시장이 없는 북한사회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시장은 더 이상 20년 전 혹은 10년 전의 조야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전히 통제와 단속이 따르고 자본주의문화와 사상에 대한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에게 시장은 생존과 성공의 공간입니다. 결국 북한사회의 내부 변화와 역동성은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들 장마당세대, 특히 여성들의 욕망에 달려있습니다.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에서 시장의 여성화현상을 넘어 과연 북한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30대 장마당 세대의 여성들은 대단한 정치적 주체는 아닐지라도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사유의 주체로 등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운 개성이나 평양으로 장보러 가면 어떨까?. 아예 정기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열리는 “보름장” 을 만들어 남북여성들이 일상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평양에 장보러 간 김에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양덕에 가서 온천욕도 하고 오면 어떨까? 남북의 여성들이 평양의 보름장에서 남한의 떡볶이와 북한의 인조고기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모습도 상상 해봅니다. 함께 해볼까요.